

J.H CLASSIC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나태주 시집

002

차례

시인의 말	5
-------	---

1부

내가 너를	12
그 말	13
좋다	14
사랑에 답함	16
바람 부는 날	17
허방다리	18
그리움	19
못난이 인형	21
사는 법	22
날마다 기도	24
한 사람 건너	26
첫눈	27
섬	28
느낌	29
서로가 꽃	30
부탁이야	31
꽃들이 안녕	33
어여쁨	34
이별	36
너를 두고	37
눈 위에 쓴다	38
끝끝내	39
황홀극치	40
꽃그늘	42
별	44

너도 그러냐	45
꽃 · 1	46
꽃 · 2	48
꽃 · 3	49
혼자서	50
개양귀비	51
초라한 고백	53
그래도	54
이 가을에	55
살아갈 이유	57
목련꽃 낙화	58
이별	59
어린 봄	60
나무	61
멀리	62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	63
떠난 자리	64
멀리서 본다	65

2부

내가 좋아하는 사람	68
말하고 보면 벌써	69
떠나야 할 때를	70

행복	72
플꽃 · 1	74
안부	76
그리움	78
아름다운 사람	80
묘비명	81
내가 사랑하는 계절	82
별들이 대신해주고 있었다	84
봄	85
11월	86
플꽃 · 2	87
기도	89
대숲 아래서	91
겨울 행	94
선물	95
바람에게 묻는다	97
오늘도 그대는 멀리 있다	99
떠나와서	101
플꽃 · 3	102
부탁	104
아끼지 마세요	106
세상에 나와 나는	108
꽃잎	110
3월	111
플잎을 닮기 위하여	113

뒷모습	115
나무에게 말을 걸다	117
외롭다고 생각할 때 일수록	118
섬에서	119
다시 9월이	121
주제넘게도	123
그리움	124
잠들기 전 기도	126

3부

눈부신 세상	128
3월에 오는 눈	129
12월	130
사람 많은 데서 나는	131
보고 싶다	132
얇은뱅이꽃	133
연애	135
나의 사랑은 가짜였다	137
사랑은	138
내장산 단풍	139
별후	140
시	141
능금나무 아래	143

추억	144
지상에서의 며칠	145
통화	146
눈	147
안개	148
가보지 못한 골목길을	149
시장길	151
그런 사람으로	152
시	153
돌맹이	155
들길을 걸으며	156
한밤중에	159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160
기쁨	163
들국화 · 1	164
슬픔	166
들국화 · 2	167
순이야	168
꽃 피우는 나무	169
제비꽃	172
말을 아껴야지	173
산수유꽃 진 자리	174
오늘의 약속	175
인터넷 시평	178

• 일러두기
한 연이 첫 번째 행에서 시작될 때는 > 로 표시합니다.

J.H CLASSIC 002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나태주 인터넷 시집

시인의 말

이 시집은 나의 시 가운데에서 인터넷의 블로그나 트위터에 자주 오르내리는 시들만 모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책이긴 하되 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만든 책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한 사람 시인의 대표작을 시인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정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독자의 힘은 크고 막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집은 나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독자들이 고른 시들만 모은 책이니 독자들이 보다 많이 사랑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붙여 가져 봅니다. 말기의 행성인 이 지구에서 또다시 종이를 없애며 책을 내는 행위가 나무들한테 햇빛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잠시 다 같이의 안녕을 빕니다.

2015년 초여름
나태주

1부



그림: 윤문영 화백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그 말

보고 싶었다
많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남겨두는 말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입속에 남아서 그 말
꽃이 되고
향기가 되고
노래가 되기를 바란다.

좋다

좋아요

좋다고 하니깐나도 좋다.



2014. WSCM

사랑에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바람 부는 날

너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니?
구름 위에 적는다

나는 너무 네가 보고 싶단다!
바람 위에 띄운다.

허방다리

네 몸에선
라일락꽃 내음이 난다, 보랏빛

네 입술에선
솔난초꽃 내음이 난다, 하늘빛

네 눈 속에서는
촛불이 타오른다, 황금빛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
어림없는 허방다리.

그리움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2014. WUPA

못난이 인형

못나서 오히려 귀엽구나
작은 눈 찌푸러진 얼굴

애게게 금방이라도 울음보
터뜨릴 것 같네

그래도 사랑한다 애야
너를 사랑한다.

사는 법

그리운 날은 그림을 그리고
쓸쓸한 날은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도 남는 날은
너를 생각해야만 했다.



2014. 6. 26. 29

날마다 기도

간구의 첫 번째 사람은 너이고
참회의 첫 번째 이름 또한 너이다.

나태주

나태주 시인은 1945년 충남 서천에서 출생했고, 1963년 공주사범학교 졸업했다. 1964년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을 했고, 2007년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으로 43년간의 교직생활을 마감했고,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였고, 1973년 첫 시집 『대숲 아래서』를 출간한 이래 『막동리 소묘』, 『산촌엽서』, 『눈부신 속살』, 『시인들 나라』, 『황홀극치』, 『세상을 껴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등 35권의 개인 시집을 출간했다. 산문집으로는 『시골사람 시골선생님』, 『풀꽃과 놀다』, 『시를 찾아 떠나다』,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 『날마다 이 세상 첫날처럼』 등 10여 권을 출간했고, 동화집 『외톨이』(윤문영 그림), 시화집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너도 그렇다』, 『너를 보았다』 등을 출간했다. 이밖에도 사진시집 『비단강을 건너다』(김혜식 사진), 『풀꽃 향기 한줌』(김혜식 사진) 등을 출간했고, 선시집 『추억의 묶음』, 『멀리서 본다』, 『사랑, 거짓말』, 『울지 마라 아내여』 등을 출간했으며, 시화집 『산물』(윤문영 그림)을 출간했다.

나태주 시인은 흙의 문학상, 충청남도문화상, 현대불교문학상, 박용래문학상, 시와 시학상, 편운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고운문화상,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충남문인협회 회장, 공주문인협회 회장, 공주녹색연합 초대대표, 충남시인협회 회장, 한국시인협회 심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공주문화원장과 충남문화원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메일 : tj4503@naver.com

나태주 인터넷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발행 2015년 6월 20일

지은이 나태주

펴낸이 반송림

편집·디자인 김지호

펴낸곳 도서출판 지혜

계간시전문지 애지

기획위원 반경환 이형권 황정산

주소 300-812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203-12층 도서출판 지혜(삼성동)

전화 042-625-1140

팩스 042-627-1140

전자우편 ejisarang@hanmail.net

애지카페 cafe.daum.net/ejiliterature

ISBN : 979-11-5728-029-2 03810

값 10,000원

이 책의 판권은 지은이와 도서출판 지혜에 있습니다.
양측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나태주 - 풀꽃1, 풀꽃2, 풀꽃3

Writings / Jeng's 2015/05/24 21:15

http://blog.naver.com/dud5243_/220369126682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1」전문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풀꽃 2」전문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풀꽃 3」전문

나태주 시인의 시는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 같다. 순수하고 꾸밈없다. 정말 풀꽃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인 것이 느껴진다. 그저 그런 것에, 평범한 것에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나태주 시인 덕분에 세상이 싱그러워지는 느낌이다. 별 볼일 없는 길목에 피어난 풀꽃이라 할지라도 그의 시로 인해 예쁘고 사랑스러워진다.

오래 들여다보면 특별할 것 없고, 잘난 것 없는 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워진다. 참 감사하다.

값 10,000원



9 791157 280292
ISBN 979-11-5728-029-2